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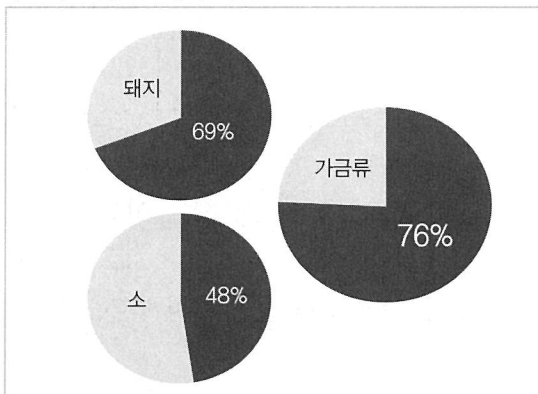


박춘욱 대표  
(주)건지

# 대형닭 생산은 닭고기업계계의 절대과제다

주기적으로 찾아 드는 불청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한 나라는 물론 관련 업계 애간장을 태우고, 금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또 어떨까 하는 두려움까지 잠복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기약없는 긴장감을 내려 놓을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더더욱 안타까운 심정이다. 설상가상으로 FTA 체결에 따른 수입육류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표 1>에서 보듯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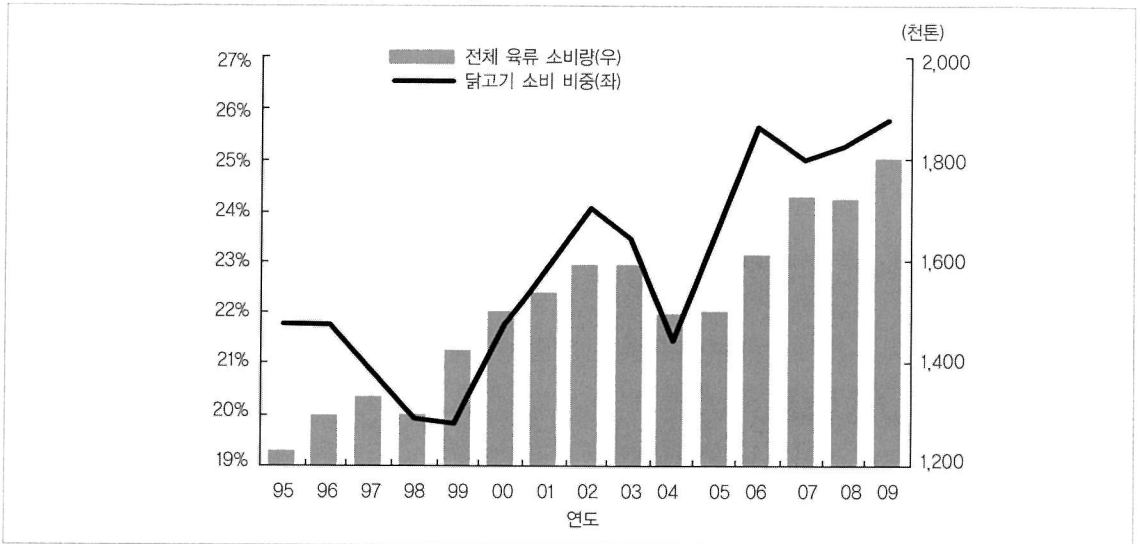
<표 1> 축종별 국내 자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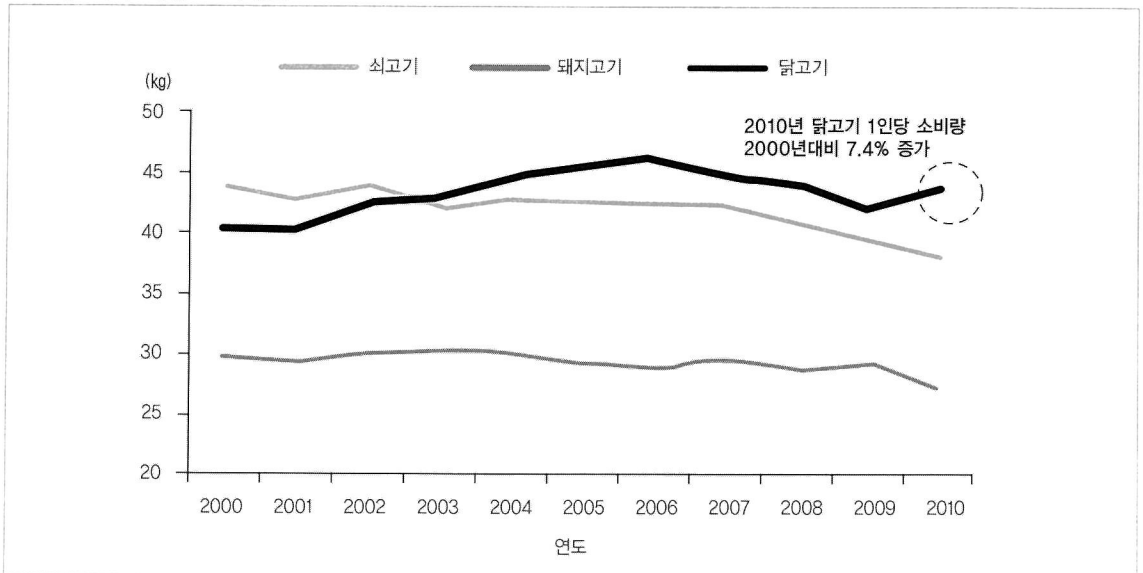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작년에 전국 3천2백가구를 대상으로 식품소비경향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치킨 등 닭 요리를 배달시키는 비율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는 음식 맛이 37.2%, 메뉴의 종류가 17.3%, 가격이 16.2%, 배달신속성이 13.4%로 나타나고 있다. AI로 인하여 가금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가금육 소비에 소치 동계올림픽이 기여했음은 물론 향후 치러질 브라질 월드컵 축구 기간에도 양계업계의 기대가 큰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소비경향은 국내 육류소비의 <표 2>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닭고기가 전체 육류시장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웰빙, 힐링문화에 편승하여 과거 적육(赤肉)소비에서 백육(白肉)으로 선회하고 있는 경향은 미국이나 선진국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우리 국내시장도 선진국형 소비형태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국내 육류 소비량 및 닭고기 소비 비중



〈표 3〉 미국 육류 소비패턴



이러한 마당에 AI는 가금업계에 가히 치명적이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절대적으로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2006년부터 일명 ‘고상식 축사(특히 제10-0786770호)’가 국내에 선보이고 있는데, 이를 국내농가에 적극 보급하는 계기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작년 하절기 고온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닭이나 오리 가 폐사된 것은 물론 금년 AI로 인하여 전국이 몸살을 앓을 때에도 고상식 축사를 설치한 농가에서는 전혀 그 피해를 받지 않은 것이 증명이 아닐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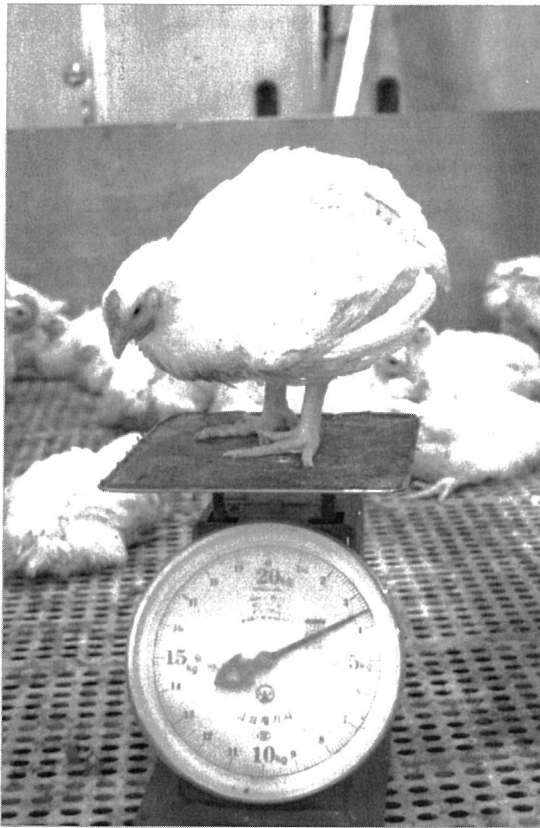
또한 최근에 일고 있는 친환경, 복지농장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한국형 축사(畜舍)!

기존 평사가 바닥에 깔짚을 깔고 닭이나 오리를 사육했다면 '고상식 축사'란 바닥으로부터 일정한 높이에 바닥재를 깔고 그 위에서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는 것이다. 이때 발생하는 배설물은 밑으로 떨어져 수시로 외부로 배출되어 배설물에 의한 폐해를 줄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위생적인 기금육 생산과 탄소배출을 극소화함으로써 환경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무항생제, 대형 닭을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육할 수 있어 생산원가절감과 다양

한 중량의 닭(뒷장 3.5kg 닭 사진 참조)이나 오리를 위생적으로 사육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소수의 농가이긴 하지만 당사가 이러한 시설을 한 농가와 수직계열화를 통하여 대형 닭(생체중량 2.5kg내외)을 시장에 보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한계로 적극적인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고, 또한 대형 닭을 사육했다 하더라도 전문도축장이나 운수차량이 없어 적지 않은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수입닭고기의 절대량이 대형 닭임을 감안한다면 외화낭비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음이 확실하고, 1등급 출현율이 높아 위생육 보급과 맛있

는 가금육으로 소비자에게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다고 자부한다.

이미 정부에서도 FTA를 대비하는 길은 대형 닭 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대형 닭 생산은 우리 업계의 절대과제이기에 시간을 늦추면 그만큼 농가와 업계는 명들어갈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음을 감안한 때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대형 닭을 사육할 수 있는 환경조건수립, 고상식 축사의 확대보급방안수립, 대형 닭을 원활하게 도축할 수 있는 방안수립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모쪼록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AI의 종식은 물론 더 이상 AI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대안이 마련되어 업계 종사자 모두가 위생육 생산에 전념하여 우리 국민의 알뜰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산업의 역군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이상 수입육이 가금육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계자 모두가 지혜롭게 합심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